

경도지적장애 학생의 신조어 능력이 또래인기도에 미치는 영향

김화수¹, 진수미^{2*}, 이지우³

¹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²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
³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문화학과 교수

The Effect Of Neologism Ability Of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On Peer Popularity

Wha-soo Kim¹, Su-mi Jin^{2*}, Ji-woo Lee³

¹Professor, Departmen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²Doctor's Course, Department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Daegu University,
³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and Culture, Dong-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생활연령 일치집단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신조어 사용의 특성과 신조어 사용 능력과 또래인기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생활연령이 14~16세 되는 경도지적장애 학생 4명과 생활연령 일치집단 일반학생 4명, 총 8명으로 하여 대상을 비모수 검정으로 집단 간 비교를 하였다. 신조어의 경우 301개의 신조어 중에서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통하여 60개의 신조어를 선택한 후, 60개 신조어 어휘에 대한 인식도와 배경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 집단 간에 신조어 이해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 집단 각각에 대하여 신조어 사용과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신조어 사용과 또래인기도가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경도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어휘 지도를 할 때, 또래와의 관계 및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조어 어휘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학령기, 융·복합 커뮤니케이션, 신조어교육, 인기도, 지적장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using new words, ability to use new words, and peer popularity among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general students of the age-matched group. A total of 8 students, 4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ged 14 to 16 years of age and 4 normal students in the age-matched group, were compared between groups using a nonparametric test. In the case of new words, 60 new words were selected through expert content validity among 301 new words, and then recognition and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60 new words were colle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new words between the student group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general student group of the same age.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new words and the popularity of peers was compared for each group of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 group of general students of the same age as possible. Therefore, when providing vocabulary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teach new vocabulary in order to increa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eers and their popularity.

Key Words : School Age, Convergence Communication, Neologism Education, Popularity, Intellectual Dis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Su-mi Jin(jinsumi0824@naver.com)

Received October 29,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Revised December 2,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하며 사회 변화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어휘들도 지속적으로 출현 및 변화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어휘는 언어의 여러 요소 중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유동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물과 개념들은 즉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단어의 출현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신조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신조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나 외래어를 뜻하는데, 하위 항목으로 신어, 속어, 은어, 줄임말, 준말, 유행어 등이 있다[1]. 과학의 발달, 현대의 변혁, 문명의 진보 등 인류사회의 빠른 변화 속 신조어의 출현은 가장 두드러진 최근 현상이며, 신조어의 생성은 현대 사회의 융복합적 정치, 경제, 문화 등 변화 및 흐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조어는 일반 어휘 못지 않게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초 어휘 및 교재 개발과 관련하여 어휘 선정에서 제외 되었다[2].

한국 교육에서 신조어에 대한 교육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언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 방식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장애인들에게 가르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정보 통신 기술의 빠른 발달로 인해 국내외 문화교류, 대중문화 발달 등을 통해 신조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현재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매체를 쉽게 접하여 SNS, TV, 드라마, 라디오 오락프로그램 등 신조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융복합적 문맥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3].

특히,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등교를 중지한 바 있다. 초록우선 어린이 재단에서 조사한 ‘코로나-19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친 일상생활 변화’에 따르면 평일 낮 시간대 부모의 공백으로 인한 ‘나홀로 아동’은 46.8%, 맞벌이 가정 49.4%, 외벌이 가정 21.1%의 부모들은 자녀의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자는 학령기 경도지적장애 학생들과 생활연령 일치집단 일반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휴대폰, SNS의 사용의 증가에 따라 신조어의 사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이에 따라 학령기 경도지적장애 학생들과 생활연령 일치 집단 일반학생들이 신조어의 이해도와 활용도에 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신조어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외 문화교류와 더불어 신조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 도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령기 학생들과 대화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4]. 윤이나(2012)은 한국어 교육에서 신조어 교육의 필요성, 체계적인 교수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5]. 이는 신조어의 특성상 다른 어휘들에 비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 되었다. 신조어 교육이 원만한 의사소통에 기여하고 있고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 등 한국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2002~2010년에는 노슬기(2014)에 의해서 한국어 신어에 대해서 연구되어졌고 2008~2010년도에는 한환희 연구자가 신어에 대해 분석하였다[6,7]. 또한 백은지(2017)는 개개된 신어 연구 자료집에 대해서 신어 연구를 하였으나 신어 자료집만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다[8]. 문금현(2019)의 연구에서는 방송 tv, 드라마, 토크쇼 등의 구어 자료들을 1996~1998년 기반으로 신조어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구어자료에 대해 연구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았고 신조어의 조어방식이 다양하여 방송에서 나오는 구어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9]. 남길임, 이수진(2016)에 따르면 신조어는 대중매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한다[10]. 실제 의사소통에서나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것을 SNS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그 중 방송은 다양한 시청 계층들이 더 쉽고 다양하게 신조어를 접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급변하는 융복합 정보 통신 시대를 살아가는 학령기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유행어, 준말, 신조어의 사용은 이 시대의 중요한 의사소통 재료가 되므로 연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경도지적장애 학생들과 일반학생들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신조어 사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접근하였다. 특히, 지적장애 학생들의 또래 간 의사소통 어려움, 정서적 교류 결여 및 공감능력 저하,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도 저하, 선생님과 학생과의 소통 저하, 부모와 학생과의 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예를 들어 또래들 간에 문자로 소통할 때 신조어 형태의 문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답변을 보내지 못할 것이다. 답변을 받지 못한 친구 오히려 인한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느

리지만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들(김영환, 1991; 나수화, 2006; 배진자, 2000에서 재인용)[11]이 신조어를 어떻게 알게 되며, 신조어를 이해하는 방법에서 일반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경도 지적장애 학생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들의 신조어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신조어를 습득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두 집단 간에 신조어의 사용이 또래인기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령기 경도지적장애 학생들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들에게 신조어가 얼마나 교육적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학습이해도가 느린 경도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신조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의 어휘 선택 및 활용도에 대해 연구의 가치를 두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경도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중학생 1~3학년 4명과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생활연령을 맞춘 일반학교 1~3학년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1.1 경도지적장애 학생의 선정 기준

- (1) 생활연령이 만13~15세에 속하는 중학생
- (2) 지능검사 결과 IQ 55~70사이이거나 지적장애 3급으로 진단받은 학생
- (3) 읽기, 쓰기가 가능한 학생
- (4) 다른 감각기관에 문제가 없는 학생

2.1.2 생활연령 일치 학생의 선정 기준

- (1) 생활연령이 만13~15세에 속하는 중학생

Table 1. Research subject information

|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 | | | General student group | | |
|------------------------------------|------------------|-----|----|-----------------------|-----|-----|
| Participants | Disability level | Age | IQ | Participants | Age | IQ |
| A | 3 | 15 | 70 | A | 14 | 103 |
| B | 3 | 15 | 75 | B | 14 | 105 |
| C | 3 | 15 | 73 | C | 14 | 110 |
| D | 3 | 15세 | 70 | D | 14 | 112 |

- (2) 지능검사 결과 IQ가 85~115사이인 학생
- (3) 읽기, 쓰기가 가능한 학생
- (4) 다른 감각기관에 문제가 없는 학생

2.2 연구 방법

2.2.1 연구설계

먼저 신조어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YI LIN(2017) 연구에서 제시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한국어 신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12]. 한환희의 신어의 조어법 연구(2014)나 이대현의 매체를 활용한 신조어 토의·토론 교수 학습 방안 연구(2016)에서는 신조어 연구를 실시할 때 가장 최신 년도 단어를 선정하기보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어휘를 선정하거나 교육적 가치를 지닌 신조어를 선정하였다[6,13]. 이 연구는 변화에 민감한 학생은 어휘를 빨리 터득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능프로그램 신조어를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예능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대화는 일상생활 대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같은 많은 신조어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김현영(2017)에 따르면, 예능프로그램 자막의 언어표현에는 통신언어와 신조어, 은어 사용이 두드러지게 많은데 이는 한국 방송 중에 자막이 없는 드라마 보다 자막이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어휘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4].

셋째,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신조어의 학습 방식에 대한 조사한 이린(2017)의 연구를 따르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신조어를 배우는 방식 중 선택한 1위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3].

넷째, 예능프로그램의 신조어가 자막처리 되어있어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신조어 목록 채택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목록을 근거로 YI LIN(2017) 연구에서 조사한 301개의 신조어 목록 중에서 전문가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60개 어휘를 선정하였다[3]. 전문가내용타당도는 교수 1명과 8명의 1, 2급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301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각각의 어휘에 대해 경도지적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어휘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게 하였으며, 8명이 알고 있다고 표

시한 어휘를 최종적으로 60개 선정하였다. 그 어휘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Neologism 60 words

| | | | | | |
|-----|-----|------|-------|-------|---------|
| 대박 | 인강 | 극성팬 | 어장 관리 | 베프 | 밀당 |
| 매너남 | 순수녀 | 화면빨 | 방부제미모 | 막장 | 케미 |
| 금손 | 팬심 | 모태솔로 | 본방사수 | 흙수저 | 세젤예 |
| 급후회 | 왕재수 | 화장빨 | 꿀잼 | 사이코패스 | 금사빠 |
| 귀요미 | 갯성대 | 차도녀 | 개수작 | 도플갱어 | 패션테러리스트 |
| 동손 | 소오름 | 노잼 | 철벽남 | 강추 | 인증샷 |
| 얼짱 | 급관심 | 심쿵 | 개고생 | 깁놀이 | 꿀팁 |
| 덕후 | 왕부담 | 빅제미 | 훈남 | 썸타다 | 의리남 |
| 매력남 | 악플 | 따봉 | 당근 | 넘사벽 | 금수저 |
| 급수습 | 핵진질 | 몸짱 | 통편집 | 떡방 | 핵꿀잼 |

2.2.2 연구도구

(1) 신조어의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 경도지적장애 학생집단과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학생 집단 간 신조어 어휘 선정을 위해서 선행연구인 YI LIN(2017)의 어휘를 참고하여 최종 어휘를 선정한다[3].

(2) 설문지 구성: 기본 인적 사항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기본 인적 사항과 또래인기도에 관련있다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한 이병림 연구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가족관계, 외모, 지능, 부모의 나이,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으로 구성하였다.

(3) 또래인기도

본 연구에서 또래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집단에 인기 있는 또래, 인기 없는 또래라고 생각되는 또래에 대해 3명씩 지명하게 하는 설문지를 수록하였다. 또한, 또래인기도 측정을 위해 인기순위 1,2,3위를 지목받아 1위는 3점, 2위는 2점, 3위는 1점을 부여하여 또래인기도를 측정하였다.

(4) 신조어 어휘 목록

본 연구에서 신조어는 YI LYN(2017)년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신조어 301개 어휘 목록 중 1,2급 언어재활사가 4점 척도로 어휘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60개의 신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신조어 어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안다-3점, 알 것 같다-2점, 들어봤으나 잘 모르겠다-1점, 모른다-0점을 부여하여 원점수를 계산하였다.

2.3 통계 처리

본 연구는 경도지적장애 학생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

반학생을 대상으로 신조어 이해 점수를 집단별로 비교하였으며,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Statistic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으며, 각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생활연령 일치 일반학생 집단 간의 신조어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조어 관련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분석하였으며 신조어 이해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인 Kendall의 tau_b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간의 신조어 이해 점수 결과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able for testing homogeneity of variances of two groups.

| | |
|---|----------|
| | VAR00005 |
| Mann-Whitney's U | .000 |
| Wilcoxon's W | 10.000 |
| Z | -2.323 |
| Approximate Significance (Two-Tailed Test) | .020 |
| Exact Significance (One-Sided Test) | .029(a) |
| a No amendments were made to the tie. | |
| b Group Variable: VAR00002 | |

Table 3를 살펴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간에 동질성 검사를 위해 지능을 입력하여 Mann-Whitney 검정에서 유의확률 0.020이므로 0.05보다 낮으므로 두 집단은 다른 집단임을 보여준다 ($p < .05$).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간에 신조어 점수 차이를 리커트 척도로 실시하여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검사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 Comparison result of average understanding of new words between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d general students group

| Group | Means | SD | Mann-Whitney | Z | Significance |
|------------------------------------|-------|------|--------------|--------|--------------|
| General student | 165.5 | 9.33 | .000 | -2.323 | 0.020* |
|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 96.5 | 5.20 | | | |

* $p < .05$

Table 4.를 살펴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 학생 집단 간의 신조어 어휘 이해 점수를 비교한 결과 경도지적장애학생 집단의 평균은 96점(SD=9.33), 일반학생집단의 평균은 165점(SD=5.20)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3.2 경도지적장애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사용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s of a survey on new words of stud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general students

| Survey content | ①Often | | ②A little | | ③Few | | ④None at all | | ⑤Want to learn | |
|--|--------|-----|-----------|-----|------|-----|--------------|-----|----------------|-----|
| | G.S | I.D | G.S | I.D | G.S | I.D | G.S | I.D | G.S | I.D |
| I have experience with new words. | 3 | 1 | 1 | 3 | | | | | | |
| Have you ever felt embarrassed or had difficulties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meaning of a new word? | 1 | | 2 | 3 | | | 1 | 1 | | |
| In what medium did you come into contact with the neologism? | 2 | | | | 2 | 3 | | 1 | | |
| How much time do you watch TV per day? | 3 | 1 | 1 | 1 | | 2 | | | | |
| Do I use SNS? | 2 | | 1 | 2 | | | 1 | 2 | | |
| What do you mainly do when using SNS? | | 1 | 2 | 1 | | 1 | 2 | | | 1 |

Table 5.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신조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학생은 '신조어를 접해본 경험이 자주 있다'가 75%, '의미를 몰라서 당황한 경험이 조금 있다'는 50%로 나타났다. 신조어를 주로 접하게 된 매체는 tv와 휴대폰이었고 tv를 보는 시간은 30분이 75%의 응답률을 보였다. SNS의 사용에 대해서는 '자주 있다'가 50%, SNS사용 시 주로 하는 일은 카카오톡과 유튜브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르는 신조어 검색의 경우 핸드폰으로 검색한다는 반응이 75%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생은 신조어 사용에 대해 자주 접하고 있으며 의미를 몰라서 당황한 경험은 다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도지적장애 학생은 신조어 사용을 자주 접하지 않았으며 당황한 경험은 다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각 집단별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 비교 결과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각각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또래인기도는 각각의 그룹에 있는 학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순으로 점수를 매겼다. 또래인기도 채점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3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은 2점, 세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은 1점으로 대상자들이 각각 점수를 매겨 합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Table 6. Neologism understanding score and peer popularity result of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and general student group

| | General student | |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group | |
|--------|-----------------|---|------------------------------------|----|
| First | A | 8 | A | 11 |
| Second | B | 7 | B | 7 |
| Third | C | 6 | C | 5 |
| Fourth | D | 3 | D | 1 |

3.3.1 경도지적장애의 또래인기도와 신조어 이해의 상관관계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인 Kendall의 tau_b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와 같다.

Table 7.를 살펴보면 경도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는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1$). 위의 결과는 상관계수가 $r=.071$ 로 상관계수가 $+0.7$ 과 $+1$ 사이이면 강한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신조어 이해 점수를 보인 학생이 또래인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낮은 신조어 이해 점수를 보인 학생이 또래인기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는 신조어의 사용과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peer popularity and neologism in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 | | Peer popularity | Neologism |
|-----------------|---------------------------|-----------------|-----------|
| Peer popularity | correlation coefficient | 1.000 | .913 |
| Neologism | Significance (two-tailed) | .071* | . |

3.3.2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 간의 상관관계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인 Kendall의 tau_b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와 같다.

Table 8. Correlation between peer popularity and neologism in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 | | Peer popularity | Neologism |
|-----------------|---------------------------|-----------------|-----------|
| Peer popularity | correlation coefficient | 1.000 | .042* |
| Neologism | Significance (two-tailed) | .042* | 1.000 |

Table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를 분석한 결과,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가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42$). 상관계수가 $+0.3$ 과 $+0.7$ 사이인 경우는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신조어 이해 점수를 보인 학생이 또래인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낮은 신조어 이해 점수를 보인 학생이 또래인기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결과는 신조어의 이해와 또래인기도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신조어 이해를 살펴보고 환경적인 요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고 한 교실에서 생활하는 경도지적장애 학생 4명과 통제 집단인 생활연령 일치 된 일반학생 4명, 총 8명을 대상으로 신조어 이해와 또래인기도와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간의 신조어 어휘 이해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인 경도지적장애인 보다 언어연령 일치 집단이 더 높은 유행어 이해 및 사용을 보인다는 천정민, 김희수, 이근용(2017)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5]. 경도지적장애 학생이 다소 낮은 신조어를 이해 및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학생에 비해 신조어에 대해 접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대상으로 신조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신조어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신조어를 접해본 경험이 경도 지적장애 학생은 '조금있다'가 75%, 일반학생은 '자주있다'가 75%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에게 신조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SNS 사용 시 주로 하는 일은 경도지적장애와 일반학생 모두 카카오톡과 유튜브로 동일하였고 모르는 신조어 검색은 경도지적장애 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등 두 집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경도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신조어를 교육할 때 다양한 융·복합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 신조어의 사용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 각각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 인기도는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1$). 또한, 일반학생 집단의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신조어 이해 점수와 또래인기도가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42$). 이는 어휘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인기도가 높았다는 김희수, 안수연(2017) 연구와 일치하였다[1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째, 경도지적장애 학생들이 한 학급에 모여 있는 특수학급이 드물어 인원수가 작게 모집된 부분과 지역별 차이, 성비에 관한 차이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일반학생 집단은 2017~2018년 신조어는 이미 신조어가 아닌 관습적인 어휘가 되어 쉽게 느껴졌으므로 더 최신 어휘를 사용하여 할 것을 권장하며 세 번째로는 경도 지적장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장애군의 여러 차원에서 신조어 이해와 또래인기도를 연관시켜 연구되기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또래인기도에 관련한 요인수가 다소 적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시키는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요약하자면, 경도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에서 신조어의 사용이 높을수록 또래인기도가 높았다. 또한, 다양한 융복합적인 매체로부터 신조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COVID-19 영향으로 인터넷, 휴대폰의 사용은 증가되어 더 다양한 신조어 경험을 하므로 신조어 교육에 대한 학습 및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경도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최신 신조어를 다양한 융복합적인 매체를 통해 교육 시킬 수 있는 활동방안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W. O. Jang.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integrated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sing new languages*. Master's degree claim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2] S. W. Yi. (2013). *A study on Korean education methods using new words*. Master's degree claim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3] L. Yi (2017). *A study of Korean neologisms in entertainment programs: usage patterns and potential for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Master's degree claim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4] D. J. Jo. (2018). *The direction of Korean vocabulary education using drama: focusing on idiomatic expressions, neologisms, and slang*. Master's degree claim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5] Y. N. Yoon. (2012). *A Study on the State of Korean Neologism Education for Foreign Learners and Teaching Methods*
- [6] H. H. Han. (2014). *A study on the coinage of new words*. Master's degree claim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 [7] S. G. No (2014). *Selection of new words for Korean education and a study on educational methods*. Master's thesi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8] E. J. Baek. (2017). *A study on the selection of new Korean words for advanced Korean learners: Focusing on topic classification*. Master's degree claim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9] G. H. Moon. (2019). *Analysis of recent trends in neologism generation-Focused on extreme expressions*. *Language and Literature*, 145, 151-177. DOI : 10.37967/emh.2019.09.145.151
- [10] G. I. Nam, Su-Jin Lee, & Jun Choi. (2017).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neologism usage trend survey using large-scale web crawling corpus*. *Korean Dictionary*, (29), 72-106.
- [11] S. H. Na. (2006). *Analysis of the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the language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octoral dissertation. Ghang-ju.
- [12] L. Yi (2017). *A study of Korean neologisms in entertainment programs: usage patterns and potential for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Master's degree claim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3] D. H. Lee(2016). *Effects of Learning Using Multimedi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6(11). 122-127. DOI : <http://lps3.www.dbpia.co.kr/libproxy.daegu.ac.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47712>
- [14] H. N. Kim. (2015). *Gesture characteristics produced from authentic communication of school-age children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Master's degree claim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 [15] J. M. Cheon, W. S. Kim, & G. Y. Lee. (2017).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usage characteristics of buzzwords in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8(2), 41-62.
- [16] H. S. Kim, & S. Y. Ahn.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munication ability, mind-reading ability, and peer popularity of general students who matched language age with adolesc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19(4), 229-248.

김 화 수(Wha Soo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학장
- 관심분야 : 언어발달장애, 의사소통,

읽기쓰기 언어처리

· E-Mail : whasoolang@hanmail.net

진 수 미(Su-mi Jin)

[정회원]



- 2018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석사
- 2021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지적장애, 학령기, 언어치료, 언어발달장애

· E-Mail : jinsumi0824@naver.com

이 지 우(Ji Woo Lee)

[정회원]



- 2014년 8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 박사
- 201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음악치료전공 박사
- 관심분야 : 음악치료, 언어치료, 발달장애
- E-Mail : leektjok7343@daum.net